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오계 수계법회에서 재가 대중이 장궤합장을 하고 오계를 수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만여 대중 '고요한 환희'에 빠지다

















2024불교도대법회 참여 대중 인터뷰

유정현 전 대불련 회장



"상반기 수계식을 놓쳤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오늘 사부대중이 동참한 수계식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수계는 '불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스스로에게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현운(69, 서울 국제선센터)



"불법승 삼보(三寶)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3번째 수계식이지만 매번 새롭고 불심이 더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계식으로 가족과 나라가 잘되고 모든 이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용선(23, 국방부 국무지원단)



"국군 대표로 수계식에 나오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계를 받으면서 해이해졌던 계율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안전하고 보람차게 군생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승현(11세, 서울 서래초)



"평소에 어린이법회에도 참여하며 불교 행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승보공양 대표 어린이로 선정돼 매우 떨리고 기대됐습니다. 이번 수계법회와 승보공양을 계기로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불자로 성장하겠습니다."

김하진(12세, 서울 평래초)



"서유기의 삼장법사와 부처님을 보고 스님과 불교 의식에 푹 빠져들었는데, 스님들께 감사하며 공양물을 올리는 승보공양은 존경심을 표하고 신실한 불자가 되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교 행사가 많이 열리길 바라며 전국민이 불교의 매력에 푹 빠져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사회의 안정을 일구길 바랍니다."

임병배(30, 정신과 간호사)



"평소 뇌의학에 기반한 마음 명상을 꾸준히 실참해 왔습니다. 2030세대 사이에서 명상을 향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대중성을 갖춘 선명상이 젊은 층을 겨냥한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에반 캠벨(Evan Campbell, 주한미군)



"미국은 명상을 비롯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기회가 부족한데,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선명상 프로그램이 보급된다면 꼭 실천하겠습니다."